

## 양신마을 산촌캠프 마당을 연 사람들~

인심 좋고 즐거운 마을~

양신마을 산촌캠프에 오신여러분을  
환영합니다!! ~~~~ (^ ^)v

우리 마을에서 산촌캠프를 한다하니  
조금은 걱정이 되고 조금은 설레이기도 하는  
마음입니다.

“도시청년들이 조그마한 시골마을에 대해  
어떤 마음일까?”

“잠시 쉬어가도 괜찮아...” 라는 말처럼  
우리 마을을 외갓집에 온 편안한 마음으로  
쉬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.



우리 양신마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 
환영합니다~~^^

### ■ 양신마을 산촌캠프 지기

이서구이장님 : 010-9490-0405

이지숙사무국장 : 010-3063-0521

(장수지역활력센터)

## 일정표 (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요)

일 정	시 간	내 용	비 고
1 일 차	13:00~ 14:00	참가 접수 및 이름표 만들기 프로그램 안내와 숙소안내	쌍계상회 (본부석)
	14:00~ 15:00	마을주민과 함께 팀만들기 간식나누기	다함께
	15:00~ 17:00	마을 탐방시간 (요리재료 득템 게임)	다함께
	17:00~ 19:00	양신마을 최고의 밥상! (팀별 요리대회)	다함께
	19:00~ 20:30	우리도 카수대! (마을 노래자랑)	다함께
	20:30~ 21:00	시 상 식 (우리동네 최고의 밥상! 우리동네 최고의 카수!)	다함께
	21:00~ 22:00	마을주민들과 사는 이야기 “살다보니”	다함께
	22:00~	자유시간~^^ 취침	
2 일 차	05:00~	기상! 기상! 새벽 일손돕기	간절한 분만 자발적~
	09:00~ 10:00	장수에서 맛보는 싱그러운 아침식사	토스트, 감자, 샐러드, 커피, 음료 등
	10:00~ 12:00	어르신들 추억의 사진으로 마을사진관 만들기 (양신마을 청춘사진관)	다함께
	12:00~ 13:00	주민들이 준비해주는 점심 식사	다함께
	13:00~	작별인사	정리 및 귀가

### ※ 마을점빵 이용방법

- 음식 재료 농산물과 양념은 관하게 사용하세요
- 냉장고에 비추된 음료, 알콜음료, 등은 개인적으로 구매가능
- 점빵에서의 모든 음식은 외갓집 간식입니다. 편히 드세요

“잠시 쉬어가도, 조금 달라도, 서투러도 괜찮아”



날 짜 : 1차 2019년 7월 27일(토)~28일(일)

2차 2019년 8월 17일(토)~18일(일)

장 소 : 양신마을회관 (전북 장수군 산서면 쌍계 양신2길 4)

주 최 : 장수군 일자리경제실 마을공동체팀

주 관 : 산서양신마을, 장수지역활력센터

## 양신마을 소개\_



산서양신마을은 봄이면 벚꽃터널  
가로수길이 예쁜 마을입니다.

삼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앞 초등학교에 아이들  
웃음소리, 책 읽는 소리가 날마다 만국기처럼  
펼려졌습니다. 지금은 그 아이들이 훌룡하게  
성장하여 온누리에서 제 뉘을 하느라 바쁘고  
마을은 곡진한 세월을 거뜬히 이겨내신  
어른들이 지키고 계십니다.

양신마을을 둘러싼 이 골짜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 
바람도 많이 불고 돌도 많고 혼자 계신 어머님들이  
많아 장수의 제주도라고도 한답니다.

여러분도 이 마을에 하룻밤 묵으면서 마을길  
살랑살랑 걸어보세요. 어디선가 곰삭은 인정이  
피부에, 가슴에, 공기 속에, 와 닿을 거예요.

600여 년 전 이 마을에 경주 이씨 일가가 자리를  
잡았습니다. 뒤이어 청주 한씨 일가도 동지를 틀게  
되었죠. 두 씨족은 서로 화합하며 잘살아보자고 다짐하며  
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었답니다.

600년 동안 모진 비바람을 이기고 아름다리 자란  
느티나무는 이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리는 보호수가  
되어 지금도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.

## 600여년 된 보호수 : 느티나무\_



## 양신마을, 신평마을 회관\_



## 쌍계상회\_



## 양신마을 점빵인 쌍계상회는

양복남어머님이 열아홉에 이마을로 시집을 와서  
살다가 자식들이랑 먹고 살라고 스물일곱 되었을  
때 열었습니다. 그 때는 코 앞에 성내국민학교가  
있어서 공책이랑 눈깔사탕이랑 참 많이도  
팔았습니다. 이 동네 점빵이 이래봐도  
5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자식들 다섯 명, 잘  
키워주고 동네 사람들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 
해줬습니다. 이제 주인도 늙고 세상도 달라져서  
지금은 우리 마을사람들 추억 속에만 있습니다.  
그려~